

가짜 연애 너무 티나... 퇴보하는 '하트시그널4'

진정성 없고, 매력적인 출연자도 줄어
나는솔로·환승연애 등 연애 예능 진화
하트시그널은 출연자 논란만 반복 돼
편성 변경·OTT 공개에도 시청률 1%대



채널A '하트시그널4'는 짝짓기 예능물이 퇴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SBS TV '착' (2011~2014)이 여성 출연자 사망 사건으로 폐지된 후 한동안 연애 예능물은 자취를 감췄지만, 하트시그널 시즌1~2(2017~2018)를 통해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인기도 잠시, 출연자 성폭행·음주운전·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얼룩졌다. ENA '나는 솔로'와 티빙 '환승연애', 넷플릭스 '솔로지옥' 등이 틈을 파고 들었고,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트시그널 4는 3년만에 돌아왔지만, 논란만 거듭할 뿐 제자리걸음 중이다.

하트시그널4는 지난날 첫 선을 보인 후 시청률 1%대(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에 머물고 있다. 애초 수요일 오후 10시30분 편성, 나는 솔로와 맞붙었지만 0%대 골육을 맞봤다. 1~2회 연달아 0.5~0.7%를 기록, 3회부터 금요일 오후 10시50분으로 편성을 바꿨다. 이후 시청률이 조금씩 올랐지만, 3~6회 1.2~1.6%에 그쳤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티빙, 웨이브,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온갖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활용해 시청자와 접점을 넓혔지만, 인기는 이전만 못했다. 물론 하트시그널4 측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자료를 인용, 6월 3주차 TV비드라마 화제성 5주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명실상부 연애 예능 최강자의 자리를 지켰다"고 홍보했다.

출연자 논란은 어김없이 이어졌다. 첫 방송 전 채널A 이진민 본부장은 "비연예인 출연자 검증은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출연진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다 받아서 검증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승무원 출신인 김지영이 올해 초까지 의사와 교제했는데, 헤어지 지 얼마 안 돼 하트시그널4에 출연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방송에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지만, 과거 소셜 미디어에 "나는 빵순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라고 쓴 사실이 알려져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김지민은 고등학교 시절 B로 활동한 의혹이 휩싸였다. 제작진은 "아프리카TV에서 수능을 준비하며 활동한 계정"이라며 "입시가 끝난 후 단순 토크 방송을 했는데, 크립터를 착용한 언니 의상으로

인해 선정적 콘텐츠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트시그널4 촬영 인증샷과 목격담도 쏟아졌다. 출연진 데이트 장면을 촬영하는 스태프 모습이 공개 돼 불만을 샀다. 특히 한 네티즌은 에버랜드에서 2대2 데이트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에 카메라와 스태프 30명 정도 있었다. 출연진이 대화하는데 (제작진이) '컷! 이 부분 잘 안 들려요!'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드라마인 줄 알았다. 걸어 오는 것부터 다 연출"이라고 썼다.

무엇보다 하트시그널4는 시청자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미 출연자들이 실제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진정성 없는 모습은 실망을 주기 충분했다. 인플루언서인 김지영을 비롯해 예스24 소속 모델인 이후신, 연극 영화와 출신인 한겨레 등이 자신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얻기 위해 출연했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으로 높아진 시청자 눈높이도 맞추지 못했다. 나는 솔로는 30~40대 결혼을 꿈꾸는 이들의 낯 가림을 보여줬고, 방송 출연 후 연애·결혼으로도 이어졌다. 환승연애는 실제로 사귀다가 헤어진 커플이 출연, 드라마보다 높은 몰입도를 자랑했다. 솔로지옥은 판타지에 가까웠지만, 연애에 맞지않은 외모의 출연자가 줄을 이었고 막대한 제작비를 써 화려한 볼거리를 시청자에게 끌어당겼다.

반면 하트시그널4는 매년 같은 포맷을 유지했다. 처음에는 출연자들이 썸을 타는 장소인 시그널하우스가 화제를 모았고, 중간에 투입되는 매력적인 출연자 '매기'도 신조어가 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매력적인 출연자는 줄었고, 오히려 생활 논란만 부각됐다. 수많은 짝짓기 예능물이 변화를 고민할 때 하트시그널4는 안주, 경쟁력을 잃은 모양새다. 채널A 정희욱 본부장은 3월 열린 간담회에서 "다른 연애 프로그램이 하트시그널과 차별점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며 "하트시그널은 하트시그널 다음엔 된다"고 자신했다. 하트시그널 다음이 언제까지 통할지, 시즌5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젠 여성 배우...박규영 조유리 '오징어게임' 합류

배우 박규영과 그룹 아이즈원 조유리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두 사람 소속사는 캐스팅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확인 불가" 입장만 내놨다.

넷플릭스는 지난 17일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주연 배우인 이정재와 함께 이병헌·공유·임시완·강하늘·박성훈·위하준·양동근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배우 라인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성 출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일단 박규영·조유리 출연 소식은 이 전제였다.

1993년생인 박규영은 넷플릭스 드라마 '달리와 감자탕' (2021) '스위트홈' (2020) '사이코지만 괜찮아' (2020) 등에 출연했다. 주로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2016년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1년생인 조유리는 아이즈원으로 활동했고, 웹드라마 등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사실상 연기 경험이 없는 신인 배우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여성 출연자는 박규영·조유리 외에도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여성 출연 배우가 공개된만큼 넷플릭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주요 여성 배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올해 중 촬영에 들어가 내년 공개될 예정이다.



이젠 할리우드...마동석 '헬 다이버' 제작·출연

배우 마동석이 할리우드 액션 영화 제작을 맡는다. 마동석은 이 영화에 출연도 할 예정이다.

소속사 비편치엔터테인먼트는 23일 "마동석이 영화 '헬 다이버' 제작자 겸 출연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작가 니콜라스 샌스베리 스미스가 2016년 내놓은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3차 세계대전 발생 200년 후를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SF액션물이다. 인류는 마지막 보루인 거대한 비행선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돌고, 생존 비행선 12대만 남게 된 상황에서 스카이다이버로 지구 표면으로 향하는 헬 다이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헬 다이버들은 비행 유지를 위해 비행기 부품을 구해오는 이들을 일컫는다. 마동석은 전설의 헬 다이버 '자비어'를 맡는다. 마동석은 "이 특별한 SF소설의 영상화를 위해 제작자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자비어라는 미묘한 캐릭터를 연기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헬 다이버'는 영화 '언차티드' 등을 만든 제작사 아라드 프로덕션이 만들고, 마동석은 공동제작으로 이름을 올린다. 아라드 프로덕션의 아리 아라드 대표는 "마동석이 '헬 다이버' 팀에 합류해서 기쁘다. 그의 카리스마로 자비어의 용기와 정신을 전 세계 관객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드 대표는 마블스튜디오 창립자로 CEO 역할을 맡은 제작자다. 애니메이션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만들기도 했다.

에이티즈, 향해사 넘어 도선사... '빌보드 200' 정상도 넘보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 역주행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이 역주행에 성공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공개 후 23일 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던 '범죄도시3'는 한 계단 주저앉았다.

'엘리멘탈'은 24일 20만5989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바 박스오피스 최상단 자리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03만1095명으로 100만 관객도 돌파했다. 지난 14일 개봉한 '엘리멘탈'은 '범죄도시3' '플래시'에 밀려 박스오피스 3위로 출발했다. 이후 입소문을 타며 '플래시'를 제쳤고, 개봉 2주차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픽사의 27번째 장편 영화인 이 작품은 불·물·흙·공기 네 가지 원소가 모여 사는 엘리멘탈 시티를 배경으로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원소인 불 엠버와 물 웨이드가 우연찮은 일로 섞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2016년 '굿 다이노'를 내놓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피터 손이 연출했다.

'범죄도시3'는 18만925명이 보는 데 그치며 개봉 24일만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내렸다. 누적 관객수는 950만9628명이다. 1000만 관객에 도전하고 있는 '범죄도시3'는 박스오피스 순위가 하락하며 개봉 4주차 주말 1000만 관객 돌파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10만2370명·누적 26만명), 4위 '귀공자' (8만3441명·누적 26만명), 5위 '플래시' (3만1510명·누적 55만명) 순이었다.

콘셉트도 꾸준하면 태도가 된다. '해적왕' 그룹 '에이티즈(ATEEZ)'는 이제 더 이상 콘셉트에 대해 노래하지 않는다. 콘셉트가 그들의 노래에서 이야기한다.

에이티즈가 지난 16일 발매한 미니 9집 '더 월드 에피소드 투 : 아웃로우(THE WORLD EP. 2 : OUTLAW)'가 증명이다. 작년 7월에 발매한 미니 8집 '더 월드 에피소드 원 : 무브먼트(THE WORLD EP.1 : MOVEMENT)'와 연관된 '더 월드' 연작이다.

'더 월드'는 조지 오웰의 '1984' 속 디스토피아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텅 빈 눈동자들 / 배일 듯한 적막에 짓눌려 / 뿔겨버린 영혼의 침묵만 / 마비되어가는 듯 / 무감각해져만 가"(에피소드 1 '무브먼트' 수록곡 '사이버 펑크' 중(中)) 라는 노랫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통제된 사회가 배경이다.

하지만 "우리 펄(Feel)로 세상을 바꿀 위 아더 게릴라스(We are the Guerrillas)"("무브먼트" 타이틀곡 '게릴라')라며 저항에 나서고, "무여 있었던 모든 걸 풀어내 / 멈춘 채 살 수 없어"(아웃로우) 타이틀곡 '바운시'라며 판을 뒤집는다.

에이티즈 전담 프로듀서인 이든(EDEN)이 수장인 프로듀싱팀 '이든너리(Eden-ary)'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고, '캡틴' 홍중과 멤버 민기가 전곡의 작사에 참여한 음반은 팀의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한다.

성별·출신·나이·종교·나라는 중요하지 않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바운시')만 있다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만의 방식으로(Outlaw)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K팝과 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놀이'임을 입증해준다.

이런 부분에 공감한 팬덤 '에이티리노'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음반 '더 월드 에피소드 투 : 아웃로우'는 26일(한국시간) 새벽에 발표 예정인 7월1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톱10에서 2위를 차지

미니 9집, 7월1일 자 차트에서 2위 유력



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윌런의 앨범 '원 싱 앳 어 타임(One Thing At A Time)'과 막판까지 정상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특히 '더 월드 에피소드 원 : 무브먼트'가 '빌보드 200'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후속작으로 해당 앨범 차트 자체 최고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무엇보다 '무브먼트' 판매량은 5만장상당이었지만, 이번엔 10만1000장상당으로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이 2배가 늘었다. 또 두 미니 음반 사이에서 이벤트성으로 발매했던 국내 첫 싱글 '스핀 오프 : 프롬 더 워트니스'가 '빌보드 200'에서 7위를 차지했던 만큼 3연속 톱10에 드는 기록도 썼다.

아울러 '더 월드 에피소드 투 : 아웃로우'는 최근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 톱100(6월 23~29일)에서 10위로 진입했다. 에이티즈가 해당 차트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K팝 보

이그룹 중 해당 차트 톱10에 들어온 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에이티즈 뿐이다.

에이티즈는 이번 음반으로 초동(앨범 발매 후 일주일 판매량)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터차트 기준 초동(집계 기간 16~22일) 152만1226장을 기록했다.

그간 에이티즈의 모습은 바다 위에서 모험을 즐기는 향해사였는데, 이제 도선사(導船士)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도선사는 항만에 임·출항하는 선박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접안(배를 항구에 대는 것)을 돕는다.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싸이커스'가 빠른 시일 내에 주목 받았던 건 에이티즈의 후배 그룹이라는 이유가 컸다. 흥중은 이들의 데뷔 앨범인 미니 1집 '하우스 오브 트리키 : 도어벨 링잉'에 대해 힘을 실었다.